

동기식 통신망에서 발생되는 위상시간에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

正會員 林範鎰* 正會員 李斗讚** 正會員 崔承國*** 正會員 金長福*

A Study on the Computer Simulation of Phase Time Error of Synchronous Network

Bum Jong Lim*, Doo Bok Lee**, Seung Kuk Choi***, Chang Bock Kim*, Regular Members

요 약

동기식통신망의 클럭들에서 발생되는 위상시간에러(phase time error)의 성분은 주로 플리커잡음(flicker noise) 및 랜덤워크잡음(random-walk noise)이다. 본 논문에서는 먼저 주파수 안정도에 대한 측정표준을 설명하였다. 그리고 백색잡음으로부터 플리커잡음 및 랜덤워크잡음을 디지털 컴퓨터상에서 생성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소개하였는데, 특히 플리커 잡음에 대해서는 단수(stage number) N, 시정수비(time constant ratio) K와 플리커잡음생성대역폭의 관계를 예를들어 규명하였다. 동기식망에서 발생되는 위상시간에러를 실제 측정한 결과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클럭의 위상시간에러를 시뮬레이션하였다.

ABSTRACT

Main components of phase time error of synchronous network are flicker noise and random-walk noise. This paper describes computer simulation of clock error characterized by a statistical model recommended as a standard measure. Flicker noise sequences are generated from white noise sequences by means of a algorithm developed by Barnes. Random-walk noise sequences are obtained by integration of a white noise sequence. Especially for flicker noise, relation between stage number N, time constant ratio K and bandwidth of flicker noise generated was defined by using some examples.

* 弘益大學校 電子工學科
Dept. of Electronic Eng., Hong-Ik Univ.

** 弘益大學校 電子電算工學科
Dept. of Electronics & Computer Eng., Hong-Ik Univ.

*** 仁川大學校 情報通信工學科
Dept. of Information and Telecomm. Eng., Univ of Inchon

論文番號 : 9469
接受日字 : 1994年 3月 7日

I. 서 론

통신망내의 모든 클럭(clock)들의 주파수 및 위상(ferquency and phase)을 일치시키는 동식식동기방법은 스타팅동기방식(stuffing synchronization technique)과 비교하여 다중화 및 역다중화가 간단하며 다중화된 신호에서 하위계위(hierarchy)의 한 신호를 직접 쉽게 역다중화 시킬 수 있어 통신망의 설치 운영 및 보수를 원활하게 하여준다. 이에 따라 광대역 통신망의 NNI의 표준으로 동기식 디지털계위(SDH: Synchronous Digital Hierarchy)가 제정되었으며 동기식 전송장치기 상용화 되고 있다.^{[1][2]}. 아울러 각 노드에서는 전송되어 온 다중화 신호를 digital cross connect 시스템이나 add drop multiplexer로 빈번하게 분리 재배치하여 다른 노드로 전송시킬 수 있게 된다. 동기식통신망의 각 노드에 있는 클럭들은 이상적인 경우 그 주파수 및 위상이 모두 동기되어 일치되어져야 한다. 그러나 각 노드내 클럭들 자체의 그 주파수 및 위상이 모두 동기되어 일치되어야 한다. 그러나 각 노드내 클럭들을 자체의 위상잡음과 클럭동기망의 동작장애 및 전송로온도 변화에 따른 클럭신호의 전송속도변화등으로 인하여 각 노드내 클럭들간의 위상은 정확히 일치되지 못하므로 지터(jitter) 및 원더(wander)가 발생된다^[3]. 어떤 한 노드의 클럭으로 형성된 데이터와 다른 노드의 클럭으로 형성된 데이터간의 위상간(phase time)차는 동기망내 존재하는 지터 및 원더에 의해서 계속 변동하게 된다. 통신망내의 모든 클럭(clock)들의 주파수 및 위

위와같은 위상변화는 버퍼(buffer)에 입력데이터를 임시로 저장(write)한 후에 다시 노드내로 읽어(read)를이는 과정에서 슬립(slip)을 발생하게하여 투명한-transparent 데이터 전송을 불가능하게 한다. 그러므로 동기식전송장치에서는 데이터간의 이러한 위상차 변화를 정/영/부 위치맞춤(positive/zero/negative justification)으로 보정하여 준다^[4]. 위와 같은 과정에서 큰 크기를 가지는 포인터조정지터(pointer adjustment jitter). 이때 발생되는 포인터조정지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기식통신망 노드간에 존재하는 위상시간에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.

우선 주파수 안정도의 측정표준에 의거하여 사용되는 정의 및 측정방법^{[6]~[9]}을 소개한 후에 이와같은 표준에 따라서 클럭간의 위상시간에러를 표시한다. 1991

년 Bellcore에서 미국의 운용중인 협대역동기식망에서 발생되는 위상시간잡음이 실제 측정되었다^{[10][11]}. 측정 결과 플리커(flicker)위상시간잡음과 랜덤워크(random-walk)위상시간잡음이 주로 나타나는 것이 밝혀졌다. 플리커 위상잡음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발생시키는 방법은 Barnes등에 의하여 1970년대에 처음 연구되었다^{[12][13]}. Barnes등은 먼저 백색잡음을 발생시킨 후 그 잡음에서 플리커타입을 컴퓨터에서 발생 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^[7].

본 연구에서는 연구 [10], [11]에서의 측정테이타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위상시간에러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여 발생시킨다. 백색잡음을 먼저 발생시킨 후 Barnes에 의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백색잡음으로부터 플리커타입을 발생시킨다. 랜덤워크잡음은 백색잡음을 계속 적분해 나감으로서 발생시킬 수 있다. 시뮬레이션에 의해 발생된 위상시간에러의 시간분산(TVAR : time variance) 및 전력스펙트럼밀도(power spectral density)를 계산, 분석하여 실제 측정테이타와 비교하여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확인한다.

II. 주파수 안정도의 측정표준

주파수 안정도의 측정에 대한 연구는 최근 30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^{[6][7][8][9]}.

일반적으로 클럭신호는 전압이 정현파적으로는 변하는 시간함수로 정의 되어질 수 있다.

$$u'(t) = U_0 \sin(2\pi v_0 t) \quad (1)$$

이러한 클럭신호에 위상잡음(jitter)이 있는 경우, 클럭신호는 다시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진다.

$$u(t) = U_0 \sin(2\pi v_0 t + \phi(t)) \quad (2)$$

여기서 v_0 는 클럭신호의 기준주파수이며 $\phi(t)$ 는 규칙적 및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위상함수(위상잡음)를 나타내게 된다. 클럭신호 $u(t)$ 의 순시주파수(instantaneous frequency) $v(t)$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.

$$v(t) = v_0 + \frac{1}{2\pi} \frac{d\phi}{dt} \quad (3)$$

식 (3)으로 부터 기준주파수 v_0 에 대한 클럭신호

$u(t)$ 의 순시주파수편차 $Y(t)$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진다.

$$Y(t) = v(t) - v_0 = \frac{1}{2\pi} \frac{d\phi}{dt} \quad (4)$$

순시주파수편차 $Y(t)$ 를 기준주파수 v_0 로 나누어 의해서 정규화된(normalized) 순시주파수편차 $y(t)$ 를 구할 수 있다.

$$y(t) = \frac{1}{2\pi v_0} \frac{d\phi}{dt} \quad (5)$$

만일 클럭이 이상적인 표준시계와 동기되었다가 $t=0$ 인 순간부터 $t=t$ 때까지 자유발전(free running)했을 때 시간편자는 주파수편차를 적분함에 의해 구해진다.

$$x(t) = \int_0^t y(t') dt' = \frac{\phi(t)}{2\pi v_0} \quad (6)$$

이때 $y(t)$ 는 단위가 없고(dimensionless), $x(t)$ 는 시간의 단위를 갖고 있는데 위상시간(phase time)이라 불리우며 시간편찰트 나타낸다. $t=t_k$ 인 순간부터 $t=t_k+\tau$ 인 시간까지의 평균주파수편자는 $t=t_k$ 인 순간의 시간편차와 $t=t_k+\tau$ 인 순간의 시간편차를 여러번 측정함에 의해 다음과 같이 얻어질 수 있다.

$$\overline{Y}_k(t_k, \tau) = \frac{1}{\tau} (x(t_k + \tau) - x(t_k)) \quad (7)$$

실제 발진기는 불규칙적인 성분과 규칙적인 편차성분을 같이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. 충분히 긴시간 T 동안 주파수편자 $y_m(t)$ 를 측정하여 보면, 불규칙적인 편차성분에 의한 주파수편자 $y(t)$ 를 분리해낼 수 있다.

$$y_m(t) = y_0 + at + y(t) \quad 0 \leq t \leq T \quad (8)$$

여기서 y_0 는 일정한 초기편차이며, at 는 노화계수(aging coefficient) a 에 의해 일정하게 증가(aging effect)하는 합수이고, $y(t)$ 는 불규칙적인 편차성분에 의

한 주파수편차이다. 불규칙적인 성분과 규칙적인(de-terministic) 편차성분을 같이 포함하는 시간편자 $x_m(t)$ 는 식 (6)과 식 (8)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질 수 있다.

$$x_m(t) = y_0 t + \frac{a}{2} t^2 + y(t) \quad (9)$$

식 (9)에서 주파수편자 $y(t)$ 가 ergodic하고, wide sense stationary한 경우, 자기상관함수 $R_y(\tau)$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되어 진다.

이때 $\langle \cdot \rangle$ 는 아상불평균(ensemble average)을 나타낸다.

주파수편자 $y(t)$ 의 전력스펙트럼밀도 $S_y(f)$ 는 $R_y(\tau)$ 를 푸리에변환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. $S_y(f)$ 를 유한역급수형태로 친개해서 표현하면 측정된 $S_y(f)$ 를 나타낼 수 있다.

$$S_y(f) = \sum_{n=2}^{12} h_n f^n = h_{-2} f^{-2} + h_{-1} f^{-1} + h_0 f^0 + h_2 f^2 \quad (10)$$

식 (7)의 평균주파수편자 $\overline{y}_k(t_k, \tau)$ 를 총 N 번 측정하여 그 평균값과 분산(variance)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.

$$\langle \overline{y}_k(t_k, \tau) \rangle_N = \frac{1}{N} \sum_{k=1}^N \overline{y}_k(t_k, \tau) \quad (11)$$

$$\sigma_{\overline{y}}^2(N, T, \tau) = \frac{1}{N} \sum_{k=1}^N (\overline{y}_k(t_k, \tau) - \langle \overline{y}_k(t_k, \tau) \rangle_N)^2 \quad (12)$$

이때 위 측정은 매 시간 간격 T 마다 τ 시간 동안 N 번 이루어질 것을 의미한다. 그러나 실제 측정시 위의 분산값은 N, T, τ 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. 그래서 IEEE^[1]나 CCIR^[2]에서는 아래와 같은 Allan variance를 측정하여 주파수 안정조를 나타내기를 권고하고 있다.

Two sample Allan variance는 측정된 데이터(평균주파수편자)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.

$$\sigma_y^2(\tau) = \left\langle \frac{(\bar{y}_k(t_k + T, \tau) - \bar{y}_k(t_k, \tau))^2}{2} \right\rangle \quad (14)$$

$T = \tau$ 일 경우 즉, $r = T/\tau = 1$ 인 경우, two sample Allan variance는 다음과 같이 간략화되어질 수 있다.

$$\sigma_y^2(\tau) = \left\langle \frac{(\bar{y}_k(t_k + \tau, \tau) - \bar{y}_k(t_k, \tau))^2}{2} \right\rangle \quad (15)$$

또는 식 (7)의 관계로 부터

$$\sigma_y^2(\tau) = \left\langle \frac{(x(t_k + 2\tau) - 2x(t_k + \tau) + x(t_k))^2}{2\tau^2} \right\rangle \quad (16)$$

Allan variance $\sigma_y^2(\tau)$ 의 또 하나의 유용한 점이 이 값에서 S_x 의 $h\alpha$ 값을 계산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$\sigma_y^2(\tau)$ 를 알면 S_x 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는 점이다. 디지털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지터의 크기 및 주파수성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$y(t)$ 보다는 실제 측정가능한 시간편차를 나타내는 $x(t)$ 가 적합하다. 식 (6)에서의 관계로부터 $x(t)$ 의 전력스펙트럼밀도 S_x 는 다음과 같다.

$$S_x(f) = \frac{1}{(2\pi f)^2} S_y(f) \quad (17)$$

이에 따라 표 1에 $\sigma_y^2(\sigma)$ 및 $S_y(f)$ 와 $S_x(f)$ 의 관계가 주어졌다. 이제 시간편차 $x(t)$ 에 대한 확률통계값을 구하고자 한다. N 개의 클럭들이 t 시간 동안 자유발진 후 각각의 표준 클럭에 대한 시간편차를 $x_i(t)$ 라고 할 때 그 시간편차들의 표준편차(standard deviation) 또는 지터의 실효치는 다음과 같다.

$$\sigma_x(t) = \left(\frac{1}{N} \sum_{i=1}^N x_i^2(t) \right)^{1/2} \quad (18)$$

α 의 값이 0, -1, -2인 경우, 스펙트럼밀도타입에 대하여 $\sigma_x(t)$ 는 $\sigma_y(t)$ 와 아래와 같은 간단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^[7].

$$\sigma_x(t) = t \sigma_y(t); \quad (t = \tau) \quad (19)$$

CCITT에서는 지금까지 클럭의 안정도 및 지터를 측정하거나 그 품질을 규정하기 위하여 TIE(time interval error) $< \chi_k>_N$ 을 사용하고 있다.

$$\langle x_k(\tau) \rangle_N = \frac{1}{N} \sum_{k=1}^N (x(t_k + \tau) - x(t_k)) \quad (20)$$

식 (12)과 식 (13)에서와 같이 그러나 이값은 N, T, τ 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져서 안정된 값을 얻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.

최근 동기식전송망에서 발생되는 지터를 위한 연구가 북미 T1X1.3 연구팀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때 Allan variance와 관계가 있는 TVAR(time variance) $\sigma_x^2(t)$ 로 클럭의 품질을 규정하고 측정하는 연구가 역시 수행되었다^{[10][11][12]}. CCITT에서도 TIE 외에 TVAR로도 클럭의 품질을 규정하고자 현재 연구 중이다^[13].

1. 시간영역에서 측정된 two sample Allan variance $\sigma_y^2(\tau)$ 와 주파수영역에서 측정되는 $S_y(f), S_x(f)$ 의 관계^[6]

Table 1. Frequency domain - Time domain stability measure conversion chart^[6]

Time domain (Allan Variance)	
Frequency domain (Power law spectral densities)	$\sigma_y^2(\tau), r = T/\tau = 1$
white x $S_x(f) = h_1 f^\alpha \left(S_y(f) = \frac{h_2}{(2\pi f)^2} \right)$	$H_2 \frac{3f_h}{(2\pi)^2 \tau^2}$
flicker x $S_x(f) = h_1 f^\alpha \left(S_y(f) = \frac{h_2}{(2\pi f)^2} \right)$	$h_1 \frac{1}{(2\pi)^2 \tau^2} \left[\frac{9}{2} + 3 \ln(2\pi f_h \tau - \ln 2) \right]$
white y (random walk x) $S_y(f) = h_2 f^\alpha \left(S_x(f) = \frac{h_0}{2} \tau^{-1} \right)$	$h_0 \frac{1}{2} \tau^{-1}$

III. 플리커잡음생성을 위한 알고리즘

백색위상시간잡음의 전력스펙트럼밀도 $S_v(f)$ 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그 크기가 일정하다. 반면에 플리커위상시간잡음의 전력스펙트럼밀도는 f 에 비례하여 그 크기가 변하여 시간영역에서 관찰하면 TVAR $\sigma_x^2(\tau)$ 는 표 1과 식 (19)에서와 같이 관측시간 τ 에 관계없이 크기가 일정하다. 백색잡음프로세서에서 플리커잡음을 생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Kartaschoff^[7]와 Baunes^{[14][15]}등에 의해 연구되었다. 플리커잡음은 아주 낮은 주파수성분까지를 가지므로 시간영역상에서는 매우 긴 시간동안 관측하여 한다. 이러한 성질의 플리커잡음을 생성하는 수학적 모델은 방대한 컴퓨터 메모리크기와 계산량을 요구한다. Branes는 작은 메모리 사용과 함께 효율적으로 플리커잡음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Branes의 알고리즘에서 단수(stage number) N , 시정수비(time constant ratio) K , 플리커잡음생성대역폭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플리커잡음을 인가하면 출력으로 플리커잡음이 생성될 수 있다^[16]. 이러한 필터의 모델링의 차분방정식(difference equation)을 사용하여 recursive한 필터의 모델링에 차분방정식(difference equation)을 사용하여 recursive한 필터가 입출력관계를 표시하면 디지털컴퓨터로 효율적인 플리커잡음의 생성이 가능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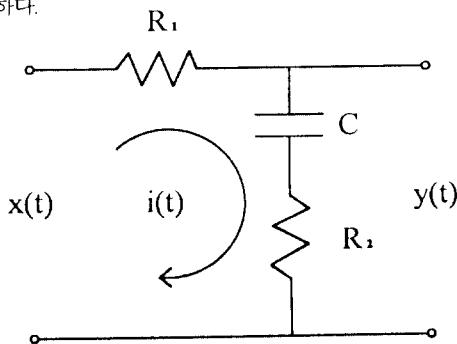


그림 1. 식 (21)에 의해 주어진 전달함수를 가지는 기본적 RC 필터

Fig. 1. Basic RC filter with voltage transfer function given by Eq. (21)

그림 1의 저역필터에서 키르히호프의 전압법칙과 푸리에변환을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전압전달함수 $G_v(\omega)$ 가 구하여진다.

$$G_v(w) \frac{Y(w)}{X(w)} = \frac{1+jw\tau_2^{(0)}}{1+jw(\tau_1^{(0)} + \tau_2^{(0)})} \quad (21)$$

이때

$$\tau_1 = R_1 C, \tau_2 = R_2 C, \omega = 2\pi f \quad (22)$$

이러한 필터가 N 개 직렬연결 되어 있을 때 i 번째 필터의 $\tau_1^{(i)}, \tau_2^{(i)}$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진다.

$$\tau_1^{(i)} = (\beta)^i \tau_1^{(0)} \quad (23)$$

$$\tau_2^{(i)} = (\beta)^i \tau_2^{(0)} \quad (24)$$

여기서 β 는 $\beta < 1$ 을 만족하는 임의상수이다.

식 (21)~(24)에서 N 개의 직렬연결된 필터의 전체전압전달함수 $G(w)$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진다.

$$G(w) = \prod_{i=1}^N \left[\frac{1+jw\tau_2^{(i)}}{1+jw(\tau_1^{(i)} + \tau_2^{(i)})\beta^i} \right], \quad (25)$$

$$\beta = \left(\frac{\tau_2^{(0)}}{\tau_1^{(0)} + \tau_2^{(0)}} \right)^2 \quad (26)$$

이 때

$$\tau_1^{(0)} + \tau_2^{(0)} = K \tau_2^{(0)} \quad (27)$$

$$\theta = j\omega \tau_2^{(0)}$$

$$\theta = j\omega \tau_2^{(1)} \quad (28)$$

로 하면 전체전압전달함수 $G(w)$ 는 식 (24)~(26)에서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.

$$\begin{aligned} G(w) = & \left(\frac{\theta + 1}{K\theta + 1} \right) \left(\frac{\theta + (K^2)^1}{K\theta + (K^2)^2} \right) \left(\frac{\theta + (K^2)^2}{K\theta + (K^2)^3} \right) \\ & \left(\frac{\theta + (K^2)^3}{K\theta + (K^2)^4} \right) \cdots \cdots \left(\frac{\theta + (K^2)^{N-3}}{K\theta + (K^2)^{N-2}} \right) \\ & \left(\frac{\theta + (K^2)^{N-2}}{K\theta + (K^2)^{N-1}} \right) \left(\frac{\theta + (K^2)^{N-1}}{K\theta + (K^2)^N} \right) \end{aligned} \quad (29)$$

전달함수가 $G(\omega)$ 인 필터에 전력스펙트럼밀도를 가지는 폴리커잡음이 생성된다. 여기서 필터의 단수 (stage number) N 과 식 (27)에서 시정수비(time constant ratio) K 의 값은 폴리커잡음 생성대역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. 저역필터를 직렬연결한 폴리커잡음생성기에서 단수 N 의 값을 크게하면 크게할 수록 주파수영역에서 긴 decade동안 f^2 에 비례하는 폴리커특성을 나타나게 되며, 시정수비 K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특성을 나타나게 된다. 식 (29)에서 N 과 K 값을 변화시킬때 필터의 출력으로 발생되는 잡음신호의 전력스펙트럼밀도가 그림 2에 구해졌다. 그림 2에서 보듯이 N 을 증가시키는 것이 K 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충실히 폴리커잡음특성을 얻기위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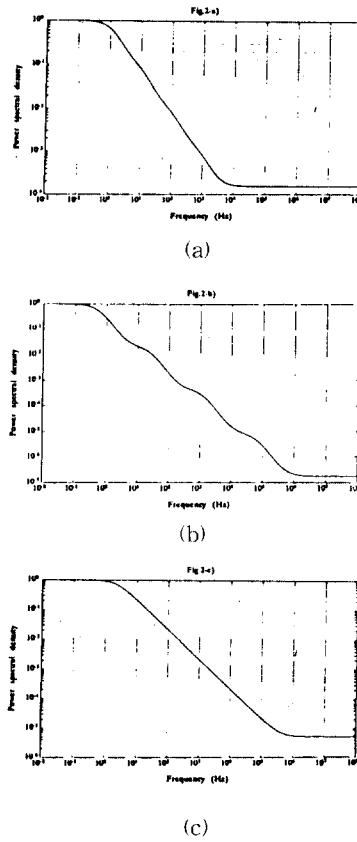


그림 2. 식 (29)의 전달함수를 가지는 필터의 출력으로 발생하는 잡음의 전력스펙트럼밀도
((a) $N=4$, $K=3$; (b) $N=4$, $K=7$; (c) $n=15$, $k=1.5$;)

Fig 2. Power spectral density of filtered noise
((a) $N=4$, $K=3$; (b) $N=4$, $K=7$; (c) $N=15$, $K=1.5$;)

폴리커잡음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이산적인 필터의 입출력관계식이 유도되어야 한다. 그럼 1의 회로에 대한 이산적인 차분방정식은 다음과 같다.

$$\begin{aligned} y_{n+1} = & \left(1 - \frac{\Delta t}{\tau_1 + \tau_2}\right) y_n + \frac{\tau_2}{\tau_1 + \tau_2} x_{n+1} \\ & + \frac{\Delta t - \tau_2}{\tau_1 + \tau_2} x_n \end{aligned} \quad (30)$$

이때

$$\gamma = \Delta t / (\tau_1 + \tau_2), \quad R = \frac{\tau_2}{\tau_1 + \tau_2} \quad (31)$$

로 하면 식 (30)은 다음과 같이 간략화되어질 수 있다.

$$y_{n+1} = (1 - \gamma) y_n + R x_{n+1} - (R - \gamma) x_n \quad (32)$$

그림 1의 경우와 달리 1단 필터가 아닌 N 단 필터가 직렬연결된 경우 이러한 시스템의 이산적 입출력 관계는 식 (32)로부터 다음과 같이 유도되어진다.

$$\begin{aligned} x_{n+1}^{(2)} = & y_{n+1}^{(1)} = (1 - \gamma^{(1)}) y_n^{(1)} + R^{(1)} x_{n+1}^{(1)} \\ & - (R^{(1)} - \gamma^{(1)}) x_n^{(1)} \\ x_{n+1}^{(3)} = & y_{n+1}^{(2)} = (1 - \gamma^{(2)}) y_n^{(2)} + R^{(2)} x_{n+1}^{(2)} \\ & - (R^{(2)} - \gamma^{(2)}) x_n^{(2)} \\ x_{n+1}^{(4)} = & y_{n+1}^{(3)} = (1 - \gamma^{(3)}) y_n^{(3)} + R^{(3)} x_{n+1}^{(3)} \\ & - (R^{(3)} - \gamma^{(3)}) x_n^{(3)} \\ & \dots \\ x_{n+1}^{(N)} = & y_{n+1}^{(N-1)} = (1 - \gamma^{(N-1)}) y_n^{(N-1)} + R^{(N-1)} x_{n+1}^{(N-1)} \\ & - (R^{(N-1)} - \gamma^{(N-1)}) x_n^{(N-1)} \\ y_{n+1}^{(N)} = & (1 - \gamma^{(N)}) y_n^{(N)} + R^{(N)} x_{n+1}^{(N)} \\ & - (R^{(N)} - \gamma^{(N)}) x_n^{(N)} \end{aligned} \quad (33)$$

식 (33)이 폴리커잡음을 생성하기 위한 N 단 필터의 차분방정식이며 이때 $R^{(i)}$, $\gamma^{(i)}$ 는 다음과 같다.

$$R^{(i)} = \frac{1}{K} m, \quad \gamma^{(i)} = \frac{1}{2} \left(\frac{1}{K} \right)^{2N+1-2i} \quad (34)$$

IV. 동기식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위상시간에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

통신망의 동기에는 기준클럭(master clock0의 타이밍정보가 전송로를 따라 하위노드로 전달되고, 하위노드에서는 지터전달대역폭이 0.001 Hz정도인 PLL을 사용하여 자신의 클럭(slave clock)을 기준클럭에 동기시키는 모양의 master-slave 동기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⁽⁵⁾. 각 노드내 클럭들 자체에도 위상시간에러가 존재하며 이중 PLL 대역폭보다 작은 저주파의 지터성분은 감쇄되지 아니하고 하위노드로 계속 통과하여 그 지터의 크기는 증가한다. 타이밍정보가 전송로를 따라 전송될 때 전송로의 하루간격 또는 일년간격의 주기적인 운도변화로 인하여 그 전송속도가 달라지므로 하루 또는 일년 주기의 저주파원더가 존재하여 노드간 최대 $18\mu s$ 의 원더가 발생될 수 있다⁽¹⁰⁾. 타이밍 정보가 전송되는 정송로에 burst에러가 발생되어 장애가 생기면 하위노드에 공급되는 다른 타이밍정보쪽으로 타이밍동기원이 절체되는 과정에서 동기망에 위상시간에러가 발생된다.

1986년 Hartmann과 Steiner에 의해서 수백 km이 상 멀어진 노드들에서 발생되는 위상시간에러가 60일 동안 실제 현장에서 측정되었다. 측정결과 타이밍정보의 전송장애등의 원인으로 랜덤워크이상시간에러가 발생되는 것이 관찰되었다⁽⁵⁾. 1991년 Bellcore에서 미국에서 실제 운용중인 동기망에서 발생되는 위상시간에러의 time variance가 자세하게 측정되었다⁽¹⁰⁾. 그림 3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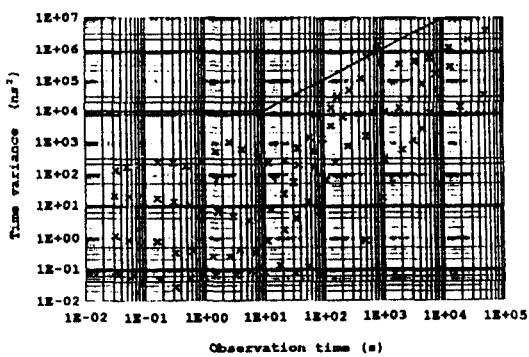


그림 3. Bellcore에 의해 측정된 미국내 동기망에서 발생되는 위상시간에러의 time variance⁽¹⁰⁾

Fig 3. Time variance of phase time error measured by Bellcore in U.S.A.⁽¹⁰⁾

측정결과에서와 같이 관찰주기 τ 가 10초보다 작을 때는 플리커위상시간잡음이 많이 발생하고, 10초보다 클 때에는 랜덤워크위상시간잡음이 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 측정결과에서 최대허용마스크(mask)가 제시되었다.

실제 현장에서 측정된 클럭의 위상시간에러(그림 3)를 대상으로 시간에러를 시뮬레이션한다. 그림 3의 최대허용마스크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플리커위상시간잡음성분은 그 TVAR의 크기가 $10^4 ns^2$ 으로 관측시간 τ 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. 반면에 랜덤워크 위상시간잡음성분은 그 TVAR의 크기가 관측시간 τ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. 먼저 최대허용마스크의 특성을 가지는 위상시간에러를 시뮬레이션하여 발생시켰다. 그림 3에서와 같이 실제 발생되는 위상시간에러는 그 크기가 마스크에 의한 값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가진다. 따라서 플리커잡음성분은 TVAR 크기가 10 과 $10^3 ns^2$ 의 값을 가진 위상시간에러를 각각 생성시켰다.

위와 같은 위상시간에러의 생성을 위하여 C subroutine의 백색잡음생성기가 이용되었다. 이 백색잡음으로부터 앞장에 설명된 Barnes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플리커탑음을 생성하였다. 그리고 백색잡음 프로세스가 적분기를 통하여 그 적분기의 출력에는 랜덤워크프로세스가 나타나게 된다⁽¹⁰⁾. 따라서 랜덤워크위상잡음은 백색잡음발생기의 출력신호를 계속 적분해 나감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. 이 랜덤워크위상잡음을 플리커탑음과 적절히 더하여 동기망에서 발생되는 위상시간잡음을 시뮬레이션하였다. 그림 4에 플리커탑음성분의 TVAR의 크기가 10 , 10^2 , $10^4 ns^2$ 인 위상시간에러의 시간적인 변화가 시뮬레이션되어 도시되었다. 모든 경우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플리커탑음성분보다 랜덤워크 잡음성분의 크기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, 이러한 경향은 플리커탑음성분의 TVAR이 작을수록 더욱 심하다.

시뮬레이션된 위상시간잡음을 주파수영역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스펙트럼이 vector radix 고속알고리즘을 이용한 이산류리에변환기를 통해 구해졌다(그림 5). 1에서 플리커탑시간잡음의 전력스펙트럼밀도의 크기는 f^2 에 비례하고 랜덤워크잡음의 경우 f^3 에 비례한다. 그림 5의 결과에 의해서도 스펙트럼의 크기는 저주파성분은 f^2 에 비례하는 랜덤워크잡음이 고주파성분은 f^3 에 비례하는 플리커탑음이 역시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. 그림 6에 시뮬레이션 위상시간잡음의 TVAR이 계산되어 도시되었으며 관찰시간 간격 10초를 경계로 하

여 특성의 플리커 및 랜덤워크 위상시간잡음이 생성된
것이 확인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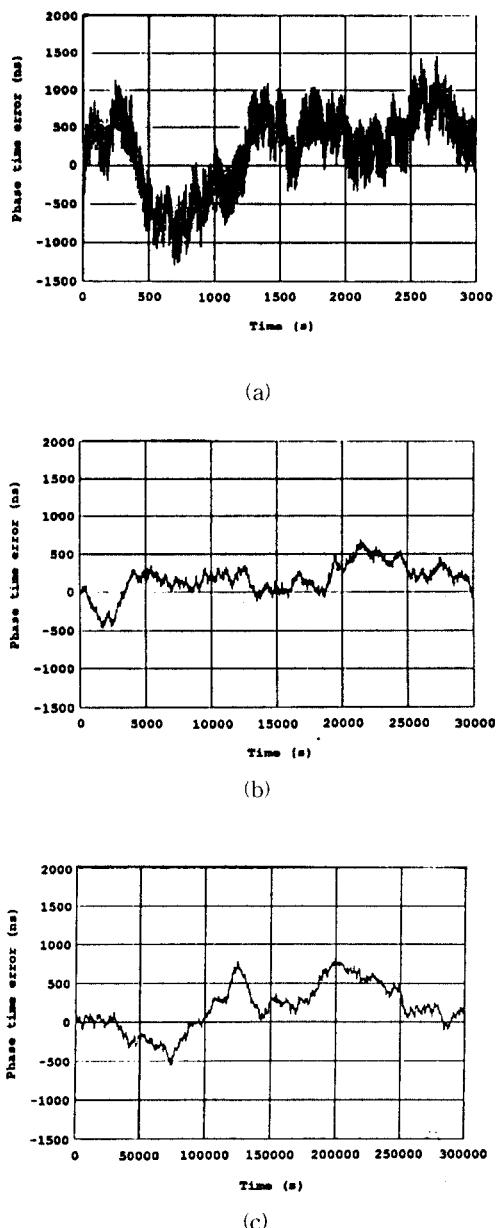


그림 4. 컴퓨터시뮬레이션된 위상시간에러의 시간적인 변화 (a) 10^4ns^2 , (b) 10^2ns^2 , (c) 10ns^2

Fig. 4. Sample function of the computer simulated phase time error (TVAR of flicker noise : (a) 10^4ns^2 , (b) 10^2ns^2 , (c) 10ns^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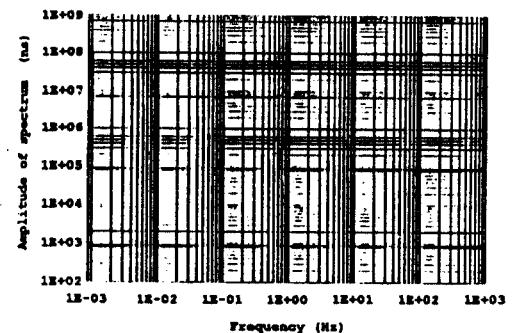


그림 5. 컴퓨터시뮬레이션된 이상시간에러의 주파수 스
펙트럼 (플리커잡음성분의 TVAR \circ 10^4ns^2 인
경우)

Fig. 5. Amplitude spectrum of the simulated phase time error (In case of TVAR of the flicker noise : 10^4ns^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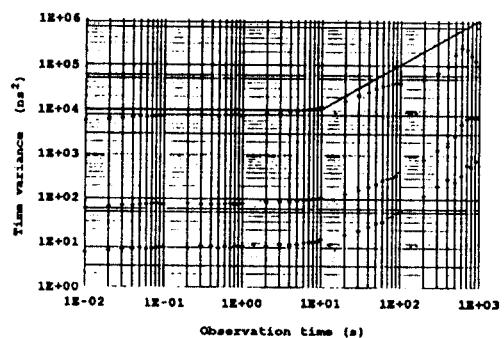


그림 6. 컴퓨터시뮬레이션된 위상시간에러의 time
variance

Fig. 6. Time variance of the simulated phase time error.

V. 결 론

본 논문에서 우선 주파수안정도에 대하여 IEEE, CCIR, CCITT등에서 권고하고 있는 측정표준을 제시하였다. 위상시간에러 또는 지터에 대하여 CCITT에서 사용되어 오던 측정표준인 TIE보다 시간영역에서는 Allan variance나 time variance가 주파수 영역에서는 전력밀도스펙트럼이 더 좋은 측정방법인 것을 소개하였다. 동기식통신망에서 발생되는 위상시간에러는 주로 플리커잡음과 랜덤워크잡음성분인 것이 실제 측정결과 밝혀졌다^[10]. 동기식통신망에서의 위상시간에러는 저주파주파수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적으로 매우 긴 관측기간이 필요하다. 이와같은 위상시간에러를 컴퓨

터로 시뮬레이션하면 신속하게 특성을 변화시키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.

백색잡음과 랜덤워크잡음은 발생시키기가 용이하나 플리커잡음의 컴퓨터시뮬레이션방법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. 본 논문에서는 백색잡음으로부터 플리커잡음을 생성시킬 수 있는 Barnes⁽¹⁴⁾⁽¹⁵⁾의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응용하였다. 이 알고리즘에서 단수 N과 시정수 비 K가 생성되는 지터의 대역폭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. 실제 측정된 동기식망의 위상시간에러⁽¹⁰⁾를 대상으로 플리커 잡음과 랜덤워크잡음성분을 조합하여 그 시간 에러를 시뮬레이션하였으며 시뮬레이션된 위상시간에러의 주파수특성과 time variance가 계산되어 그 결과가 확인되었다. 동기식통신망의 각 노드내 클럭간의 위상시간에러는 앞으로 사용할 SDH 동기식전송장치에서는 정/영/부 위치맞음으로 그 예리를 보정하여 준다. 본 논문에서 개발된 위상시간에러발생기를 이용하여 이때 발생되는 포인터 조정지터를 분석하는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다⁽²⁰⁾.

본 논문은 한국전기통신공사 연구개발단 장기기초 연구사업의 수행결과입니다.

참 고 문 헌

- CCITT Recommendation, G.707 and G.709, Blue Book, 1988.
- CCITT Revised Recommendation, G.707, G.708 and G.709, 1992.
- 국경묵, 신성문, 이종협, “유럽 각국의 광대역 통신서비스 진화방안 분석”, 전자통신동향분석, 한국전자통신연구소, 제8권 3호, pp.127-141., 1993.10.
- 황성문, “한국통신의 광통신기술 발전전략”, 한국통신학회지, 제9권 8호, pp.5-13, 1992.8.
- Hartmann H.L. and Steiner #, “Synchronization Techniques for Digital Networks”, IEEE J. Select. Areas on Commun., Vol. SAC-4, No.4, pp.506-513, July 1986.
- Barnes J.A. et. al., “Characterization of Frequency Stability”, IEEE Trans Instrum. Meas., Vol. IM-20, pp. 105-120, May 1971.
- Kartaschoff P., “Computer Simulation of the Conventional Clock Model”, IEEE Trans. Instrum. Meas., Vol IM-28, No. 3, pp. 193-197, Sept. 1979.
- Ruttmann J., “Characterization of Phase and Frequency Instabilities in Precision Frequency Sources : Fifteen Years of Progress”, Proc. IEEE, Vol. 66, No. 9, pp.1048-1075, Sept. 1978.
- CCIR Report 580 and New Recommendation, Kyoto, 1978.
- Johnson W.B., Brown R., “A New Network Synchronization Phase Noise Simulator”, Contribution to T1 standards project TIX1.3/91-074.
- Cataltepe T., Near C.D., “Proposal for a New DS-1 TVAR Mask for SOET Simulations”, Contribution to T1 Standards Project TIX1.3 / 92-134.
- Mahon K.K., “Measured Phase Stability of Network Signals”, Contribution to T1 Standards Project.
- CCITT draft Recommendation G.811s “Timing Characteristics of Slave Clocks Suitable for Operation in SDH Equipments”, 1992.
- Barnes J.A. and Jarvis S., “Efficient Numerical and Analog Modeling of Flicker Noise Processes”, NBS Tech. Note 604, June 1971.
- Barnes J.A., “Models for the Interpretation of Frequency Stability Measurements”, NBS Tech. Note 683, Aug. 1976.
- John G. Proakis, Dimitris G. Manolakis, “Digital Signal Processing”, Macmillan, 1988.
- CCITT recommendation, G.783M, 1992.
- CCITT draft Revised Recommendation G.823, “The Control of Jitter and Wander within Digital Networks which are based on the 2048 kbit/s Hierarchy”, 1992.
- Papoulis A., “Probability, Random Variables, and Stochastic Processes”, McGraw-Hill, 1987.
- 김장복, “화상전송을 위한 광대역동기식망에서 발생되는 지터에 관한 연구”, 한국통신연구개발단, ‘93 장기기초 연구과제 최종보고서, 1993.12.



林炳鍾(Bum Jong Lim) 정회원
 1989년 : 홍익대학교 전자공학과
 (공학사)
 1991년 :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
 공학과(공학석사)
 1991년 ~ 현재 : 홍익대학교 부설
 과학기술연구소연구원

*주관심분야 : 영상처리, 영상압축 및 네트워크 분야



崔承国(Seung Kuk Choi) 정회원
 1974년 :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(공
 학사)
 1981년 :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
 학과(공학박사)
 1988년 ~ 독일 Braunschweig 공과
 대학 전자공학과(공학박
 사)

1978년 ~ 1981년 :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연구원

1989년 ~ 현재 : 인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부교수

*주관심분야 : 디지털통신시스템, 동기(synchronization)



李斗鍾(Du Bok Lee) 정회원
 1971년 :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
 (공학사)
 1986년 :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기공
 학과(공학박사)
 1975년 ~ 1989년 : 홍익전문대학 전
 자과 교수

1981년 ~ 1982년 :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 연구원

1989년 ~ 현재 : 홍익대학교 전자전산공학과 교수

*주관심분야 : 디지털 시스템, 컴퓨터응용 및 통신시스템



金長福(Chang Bock Kim) 정회원
 1974년 :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(공
 학사)
 1976년 :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
 학과(공학석사)
 1983년 : 연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
 학과 (공학박사)

1987년 ~ 1988년 : 독일 Braunschweig 공과대학 박사후과정

1979년 ~ 현재 : 홍익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

*주관심분야 : 디지털 신호처리 및 데이터 통신망 분야